

<경인에너지>

영업부진 · 수익성 악화 정유 4위도 “불안”

경인에너지(대표 성낙정)는 한국화약과 미국 Union Oil이 합작(68년3월, 83년말 철수)하여 설립된 정유기업으로 91년 석유제품 내수 3101만배럴, 수출 210만배럴 등 3312만배럴, 7067억원을 판매하는 등 90년대비 25.0% 신장된 총 7649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.

그러나 매출총이익 1112억원(43.2% 증가), 경상이익 154억9000만원(31.0% 증가)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, 특별손실이 급증하고 3년간 보류되어온 법인세 납부 등으로 순이익은 42억9000만원에 머물러 90년 73억6000만원대비 14.6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경인에너지는 석유제품 외에 전력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, 91년에는 155만6000MWH를 판매, 90년 447억원대비 1.6% 감소한 439억8000만원 실적에 그쳤다.

영국 BP의 기술을 도입, 90년 시작한 윤활유사업도 영업부진으로 91년 11만7000배럴, 142억원 판매에 그쳤고 BTX는 공장 건설이 늦어 올 3월에야 가동에 들어갔다.

<표1> 경인에너지의 영업실적 및 재무현황

(단위:억원, %)

항 목	1988	1989	1990	1991
매 출 액	4924.4	4947.1	6116.0	7648.9
증 가 율	△1.2	0.4	23.6	25.0
매출총이익	334.2	515.8	776.7	1112.3
영 업 이 익	54.1	197.1	340.0	413.0
경 상 이 익	77.3	67.8	118.2	154.9
당기순이익	83.7	70.1	73.6	42.9
증 가 율	9.9	△16.3	4.9	△14.6
유 동 자 산	1853.9	2047.7	4569.3	3352.6
고 정 자 산	1346.4	1625.9	2859.3	5477.5
자 산 총 계	4373.6	5119.5	9468.3	11965.0
유 동 부 채	2089.1	2393.3	4929.6	5058.0
고 정 부 채	859.7	1282.2	2793.7	4789.2
부 채 총 계	2948.8	3675.5	7723.3	9847.2
자 본 금	585.5	585.5	707.7	924.4
자 본 총 계	1424.7	1443.9	1745.0	2117.7

<표2> 경인에너지의 주요 사업별 영업실적 및 전망

(단위:1000배럴, 억원, %)

구 분	1990		1991			1992(예상)		
	수 량	금 액	수 량	금 액	증감률	수 량	금 액	증감률
내 수	27,791	5107.9	31,016	6773.4	32.6	37,2000	7018.4	3.6
수 출	2,786	481.9	2,106	293.7	△39.1	4,000	613.6	108.9
석유제품	30,577	5589.8	33,122	7067.1	26.4	41,200	7632.0	8.0
전 력	1,489	447.1	1,556	439.8	△1.6	1,600	445.0	1.2
윤 활 유	73	79.1	117	142.1	79.6	145	176.0	23.8
벤 젠	—	—	—	—	—	38,000	97.2	—
톨 루 엔	—	—	—	—	—	65,000	149.6	—
자 일 렌	—	—	—	—	—	150,000	345.2	—
B T X	—	—	—	—	—	253,000	592.0	—
총 매 출	—	6116.0	—	7649.0	25.1	—	8845.0	15.6

주) ① 증감률은 금액기준, △는 감소 ② 전력수량은 1000MWH, BTX는 톤

경인에너지는 올해 석유제품 내수 3720만배럴, 수출 400만배럴 등 4120만배럴을 판매, 7632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한편 전력 160만MWH 445억원, 윤활유 14만5000배럴 176억원 실적을 계획하고 있다.

또 BTX사업은 수출호조에 따라 벤젠 3만8000톤, 톨루엔 6만5000톤, 자일렌 15만톤 등 25만3000톤, 592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총 8845억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.

한편, 경인에너지는 석유 정제설비를 16만B/D로 증설하고, BTX는 연산 30만톤 설비를 가동하는 등 신규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, 만성적인 금융비 부담 및 영업부진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또 부채비율이 464.9%에 이르고, 금융비용 부담률이 3.9%에 달해 93년말 완공 예정인 중질유 분해 및 탈황설비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, 쌍용정유에 3위자리를 넘겨주면서 물러선 정유 4위 자리도—극동정유 정상화 여부에 따라서는—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